

광주 온 이용대 '사랑의 셔틀콧'

빛고을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인 강습회' ... 화순 '이용대 체육관' 기공식 참석도

“그랑프리 대회 남북 4연패 이루겠다”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이용대 라켓'을 들고 런던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

‘윙크 보이’ 이용대가 광주를 찾아 금빛 스매싱을 선보였다. 이용대는 4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인 강습회’에서 김종수 전 국가대표 감독과 일일 감사로 나섰다.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한 강습회에서 이용대는 기본 자세 등을 강습하고 직접 시범도 보이며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호흡을 맞췄다. 팬사인회에는 500여명의 팬이 몰려 국가대표급 인기도 과시했다.

광주 나들이를 끝낸 이용대는 고향 화순에서 국제대회와 기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6일 2011 화순비터코리아 그랑프리골드 국제배드민턴 대회가 개막하고, 10일 ‘이용대 체육관’ 기공식이 열린다.

11일까지 화순 하니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대회에는 23개국 6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이용대는 남자복식 4연패를 노리고 있다.

정재성과 짝을 이뤄 남자복식 우승에 도전하는 이용대의 혼합복식 출전 여부는 미지수다. 파트너 하정은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출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용대는 “후반기에 경기가 많아

최근 시합위주로 뛰고 있다. 런던 올림픽 진출이 확정됐지만 좋은 시드, 좋은 조건에서 올림픽을 뛸 수 있도록 남은 대회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대회 준결승전이 열리는 10일에는 ‘이용대 체육관’이 첫 삽을 뜬다.

이용대는 “내 이름을 딴 체육관이 만들어지게 돼서 영광이다. 주변에서 이용대 체육관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용대 체육관’에 이어 ‘이용대 라켓’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내년 1월3일 배드민턴 용품 전문 메이커인 빅터에서 ‘이용대 라켓’을 출시한다. 선수 이름을 브랜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대는 “내 사인도 들어가고 금빛으로 물들인 제품이다. 내가 파워 플레이어는 아니고 수비나 드라이브 위주로 하는 선수인데 가볍고 나한테 맞는 제품이다. 올림픽때 그 라켓을 들고 가겠다”며 “배이징 올림픽 남자복식에서 1회전 탈락해서 아쉬웠는데 회복에서 편하게 일해 금메달을 땀다. 런던에서는 남자복식에서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남은 기간 체력, 기술적인 부분에 신경써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출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가 4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동호회원들에게 그립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웨이터 안치홍입니다, 맘껏 주문하세요”



KIA 선수들이 3일 남구진월동 밀러타임에서 진행된 김동재코치 돕기 일일호프에서 사인볼을 판매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타이거즈 선수들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

충장로 일대에서 사인회 기념품 판매에도 팬들 성황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웨이터와 판매원으로 변신했다.

3일 KIA 타이거즈가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 및 사인회를 열었다. 남구 진월동 밀러타임과 충장로 일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선수들은 주장 차일목의 지휘 아래 사인볼과 야구용품 판매 등을 전담했다.

최고참 이종범부터 루키 박지훈 그리고 며칠 전 넥센에서 영입된 박준수까지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가하면서 이날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일일호프는 1시간 연장 운영됐다. 사인회와 기념품 판매 코너

에도 많은 팬들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선수단 애장품 경매 열기도 뜨거웠다. 김상현의 배트와 서재응의 뉴욕메츠 유니폼, 윤석민의 스파이크 등은 60만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안치홍과 김진우 등은 직접 모금함을 들고 행사장을 돌면서 모금활동도 펼쳤다.

지난 행사와 다르게 길거리 사인볼 판매도 진행됐다.

나지완은 이날 사인볼 판매를 주도하면서 ‘판매왕’에 등극했다.

한기주·김선빈을 이끌고 충장로 일대를 돌며 사인볼 판매에 나

선 나지완은 준비한 230개의 사인볼을 2시간여만에 완판했다. 일일호프를 찾은 김상현의 와이프에게 판매가보다 3배 높은 가격에 ‘김상현의 사인볼’을 판매하는 수완까지 발휘하며 ‘판매왕’의 자리를 차지했다.

차일목 상호회장은 “많은 팬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며 “이러한 팬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김동재 코치님은 분명 쾌유하실 것이다”고 팬들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차일목은 또 “무엇보다 선수를 보내 선수단이 푹푹 뽕쳐 자신의 일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줘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하늘

김하늘 KLPGA 여왕

해남 파인비치서 열린 왕중왕전 우승

올 시즌 상금왕과 다승왕, 대상을 휩쓸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김하늘(23·비씨카드)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왕중왕전에서 정상에 오르며 다시 한 번 골프 여왕으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김하늘은 4일 전남 해남의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파72·6321야드)에서 열린 한양수자인·광주은행 왕중왕전 마지막날 2라운드에서 1타를 잃어 합

계 1오버파 145타로 김혜윤(22·비씨카드·4오버파 148타)을 3타 차로 따돌렸다. 김하늘은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기록하며 1오버파 73타를 쳤다.

이날 2라운드 15~18번홀에서는 두 개의 핀이 꽂혀 선수가 선택해서 공략할 수 있는 ‘더블핀-더블스코어’ 방식이 적용됐으나 김하늘은 유일하게 더블스코어 방식을 택한 17번홀(파5)에서 파를 기록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연환뉴스

최경주 3타 차 3위 세브론월드챌린지 3R

타이거 우즈(미국)가 세브론 월드챌린지 골프대회(총상금 500만달러) 3라운드에서 2위로 한 계단 내려섰다. 우즈는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오코스의 셔우드 골프장(파72·7천27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잡았으나 보기가 5개가 나와 1타를 잃었다. 3라운드까지 7언더파 209타를 기록한 우즈는 전날 단독 1위에서 2위로 순위가 밀렸다. 이날만 4타를 줄인 잭 존슨(미국)이 8언더파 208타를 쳐 우즈에 1타 앞선 단독 1위가 됐다. 1라운드 선두였던 ‘탱크’ 최경주

(41·SK텔레콤)는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이븐파 72타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5언더파 211타가 된 최경주는 전날 공동 2위에서 단독 3위로 소폭 하락했다. 1위 존슨과는 3타 차이이다. 앞서 경기를 치른 존슨이 16, 17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기록해 우즈가 잠시 단독 선두에 나섰으나 우즈 역시 16번 홀에서 1타를 잃었고 반대로 존슨은 18번 홀(파4)에서 짜릿한 이글을 잡아 순위

를 뒤집었다. /연환뉴스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결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이,호텔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년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점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수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

이태리소파 식탁/좌탁 30%
11월 신상품 포함 2011 **최대특별가** 판매(12월18일까지)

골드소파 모방되지 않은 오리지널 20k골드소파

기능소파 이태리가죽과 독일기능의 최고급소파

골드식탁 국내최저가판매, 밀라노 디자인 특허

앤틱식탁 보조판 연결로 10인용으로 간단사용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
동구 정동 58-15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기구빌딩

홍은 수입원/직수입→**도매가** 판매(전남에 한함)
서랍안이나 가죽이 **역한 냄새**가 나면 독성있는 중국산입니다.
전국 고급가구의 90% 이상은 중국산입니다.(수입신고서 확인)
이태리가구 전문 빌딩 400평 매장